50주년 기념 새물리 역대 편집위원장 간담회

DOI: 10.3938/PhiT.20.047

박성균·부상돈·홍순철

일시: 2011년 4월 14일 목요일

장소: 대전컨벤션센터

참석자: 홍순철(사회, 새물리 편집위원장), 우정원(실무이사장),
고윤석(서울대 명예교수), 조성호(고려대 명예교수),
권숙일(서울대 명예교수), 김민곤(전 한국외대 교수),
송희성(서울대 명예교수), 김철성(국민대 교수), 황보창권(인하대 교수), 부상돈(새물리 실무이사), 박성균(새물리 부실무이사)

간담회를 시작하며

홍순철 이렇게 원로교수님을 모시니, 새물리 50년 관록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여러 원로 교수님들에게 새물리 편집 실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새물리 실무이사를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에 부상돈 교수님, 부실무이사를 맡고 있는 부산대학교에 박성균 교수님, 그리고 학회에서는 김윤옥 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 저희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자 우정원 실무이사장님도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우정원 실무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정원 이렇게 바쁘게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물리는 물리학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장님들 모시고, 어제 총회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봄 학술대회는 새물리 50주년, 가을학회는 CAP 10주년 기념으로 꾸몄습니다. 지금 현 편집위원장인 홍순철 위원장님이 새물리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물리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좌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학회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원로교수님들에게 회장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홍순철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은 요즘 새물리 발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편집장을 맡고 보니, 새물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학회에서 발표되는 많은 주제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외국 사람들의 연구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새물리(국문학술지)가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을 돌이켜 보고 새물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원로교수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물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수가 1년에 180편 정도됩니다. 그중에 특별호가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거의 100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논문이 들어오는 것은 한 달에 9편 정도가 됩니다. 물리학회에서 발행하는 JKPS, CAP 등의 학술지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한 회원들 사이에서도 새물리는 관심의 대상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난번 (2008-2010) 새물리 편집위원장인 황보창권 교수님께서 SCIE 등재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맡아서 관리하는 입장이고 SCIE가 등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CIE가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총설논문을 일 년에 6편 정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상 새물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 회고담

홍순철 먼저, 새물리 발간 초창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윤석 그때는 편집간사라고 하였어요. 내가 1965년부터

67년까지 2년 동안 간사를 맡았을 때 그때는 유일한 저널이라는 게 새물리이니까. 논문도 실어야 하고, 학회 활동도 소개해야 하고 일이 많았죠. 새물리를 담당하는 게 편집간사의 임무였어요. 그때도 연구논문이 잘 안 들어오니, 회원들에게 새물리에 많이 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편집간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어지간한 논문들은 새물리에 내지 않고 다른 데(예: Physical Review 등)에 내려고 했지요. 그래서 최소한 국내에서 석사학위 논문이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새물리에 게재한다는 것이 방침이었죠. 그래도 논문수가 창피할 정도로 적었어요. 아마 내 기억으로는 다섯 편, 여섯 편 내기도 힘들었어요. 또한, 그때에는 편집간사가 교정도 직접 보아야 했어요. 편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독촉도 사정도 하고 해서 인쇄마감을 했어요. 어떤 심사위원은 논문을 거절(reject)해버려요. 그러면 논문수가 더 줄어저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땐 사정사정해서 수정하도록 하는데, 수정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편집간사가 다 해야 하니깐 일이 너무 많았지. 그때는 지금처럼 누구한테 연락하고, 정리하는 사무직원이 없었지. 학회 직원은 단 한 명. 직원 하나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대학원 학생들 데려다가 교정도 보고 했지. 하지만 결국은 내가 논문 심사 부탁, 교정, 그리고 인쇄소 가서 밤새도록 출판 교정, 최종본 교정보고 다 했지. 그러니 편집간사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 그래서 내가 상임이사장이 되었을 때 교정을 볼 수 있는 직원을 채용했지.

홍순철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셨는지요?

고윤석 네 명이 지원을 했는데, 영어, 타이핑, 회계, 교정(학회에서는 틀림없이 교정을 해야 하니까)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을 채용했지. 내가 지금도 생생한데. 내가 편집간사를 해 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교정은 최소한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때 채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성호 금년이 50주년이라니까. 61년부터 새물리가 나왔는데 기록상으로 저는 62년에 물리학회에 입회를 했고, 63년에 새물리에 논문을 한 편 싣고 외국에 가서, 그 다음에 71년에 왔기 때문에 그 후부터 새물리에 논문을 실어서 아마 60년대 얘기는 고 선생님하고, 권 선생님께서 제일 많이 아시는 게 아닌지요.

권숙일 나도 66년도에 왔기 때문에 고 선생님과 안세희

▲ 50주년 기념 새물리 역대 편집위원장 좌담회. (좌) 김민곤, 권숙일, 고윤석, 조성호, 송희성, (우) 김철성, 홍순철, 황보창권, 우정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조성호 안세희 선생님, 그리고 돌아가신 김정흠 선생님이 아마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고윤석 김정흠 선생님이 일은 많이 했고, 김철수 선생 때부터 편집위원장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편집간사였죠.

김민곤 60년대에는 김철수 선생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죠.

고윤석 지금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들은(새물리, JKPS, CAP) 서로 특색이 있지 않나요? 내가 실무이사장하고 회장하고 하면서, 새물리는 고등학교 교사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리학회 회원들이 적으니까 처음에는 고등학교 물리교사들을 회원으로 모집하려고 대대적인 운동을 했죠. 그들에게 읽을거리를 쥐야지 하는 마음에서 새물리에 물리교육을 많이 실었죠. 그래서 지금도 물리교육이 새물리에 많이 투고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그런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은 뭔가 특색 있는 것을 만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송희성 옛날에 물리교육지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도 논문이 적고, 새물리도 논문이 적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새물리에 통합하지 않았나요.

조성호 아마 응용물리지라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전부 새물리로 통합이 됐죠.

고윤석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부회장할 때부터 자꾸 응용물리학회를 만들려고 해서 힘들었죠. 학회 내에서도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응용물리학회보다 그냥 물리학회로 하는 것이 좋고 응용물리분야를 존중해 주자는 취지에서 응용물리학회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물리와 다른 학술지와의 관계

조성호 새물리와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발행에 기본적인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나면요, 물리학과 첨단기술에는 그 잡지의 이름처럼 최첨단의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서 홍보효과는 많이 가져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솔직히 제가 읽어봐도 너무 advance하여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홍보잡지로서 과연 보통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 적합한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전문적인 내용을 새물리로 보내서 좀 더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야말로 홍보잡지는 보통 사람들도 읽어서 알 만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희성 제 경험으로는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JKPS 논문 심사 중에서 좀 부족하다는 논문은 번역해서 새물리에 넣을 때도 있었죠.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권숙일 지금은 새물리도 영어로 낼 수 있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reject하지 말고 JKPS에서 혹은 CAP에서 조금 안 되는 것은 일단 새물리에 내도록 권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새물리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CIE가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다른 학술지 위원장이 안 계시니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회에서 잘 고민해 보세요.

송희성 그때도 저자가 안하겠다고 하면 안 옮겼지.

권숙일 Nature나 Science에 투고한 사람들이 reject 되면 PRL이나 다른 학술지로 내려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으니, JKPS나 CAP 위원장들과 잘 의견을 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네요.

김민곤 표절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새물리에 먼저 투고하고 논문을 다듬어서 영문으로 작성하여 JKPS나 다른 영문 잡지에도 투고하곤 했는데, 지금은 자기 표절 문제로 취급을 해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옛날식으로 새물리에서 다른 학술지로 간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요. 아마 사람들이

JKPS나 CAP에서 심사해서 못한 것을 새물리에 내라고 하면 저자들이 떨어져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편집위원들이 논문에 따라서 CAP, JKPS, 혹은 새물리에 내라고 추천해주면 좋지 않은가.

권숙일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저널의 성격이 지금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논문이 더 많아졌거든.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물리가 지금 송선생이 제안하시는 것과 같이 JKPS나 CAP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대학원생이 더 좋은 학술지에 내기 위해서는 새물리를 거쳐 가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철성 홍보잡지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최근 회장님들은 다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물리에도 원로교수님들을 모셔서, 자문위원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성호 교수님 말씀처럼 홍보잡지에 해당되는 해설논문이 새물리로 오게 되면, 새물리는 전혀 문제없이 발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잡지의 내용은 중·고등학교에서도 읽을 수 있게 만화도 나오고, 서울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면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잡지 편집위원들, 새물리 편집위원들, 원로 교수님들, 그리고 회장님하고 다들 모여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원 제 생각에는 홍보잡지 편집위원회와 새물리 편집위원회는 서로의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새물리는 원고가 투고되면 심사를 통해 그것으로 게재해주는 학술지 형태입니다. 반면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기획을 통해서 일 년에 10번을 내는 학회지입니다. 또한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기획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기사를 모집하는 편집위원회를 매달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물리학과 첨단특집이 위상 절연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기사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물론 첨단기술이니 내용도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고 도움이 된다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네요. 특히 물리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하지만 일반인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게 사실이죠. 새물리를 총설논문, 지부학회를 통한 학술지 모집 등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면 원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까 기획을 하세요. 일년에 5번은 지부학회를 통해서 원고를 받고 특집도 기획하시고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특집내용은 두 편집위원장님들이 조율을 해야 되겠죠.

송희성 지금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다 무료 배포잖아요. 하지만 새물리는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선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기 위해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투고하는 것이고, 새물리는 안보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관심이 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곤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기획해서 원고를 받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새물리는 가만히 앉아서 투고하는 것만 게재를 하니까 그 논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성 똑같이 새물리도 총설논문을 기획합니다. 기획을 해서 페이지당 얼마 해서 원고료를 드립니다.

김민곤 새물리 편집위원과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편집위원비가 어떻게 되죠? 새물리가 살아나려면 편집위원 수가 많아져야 되요. 그래서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한 편을 모아와라 이렇게 되어야 해요. 현재 새물리는 투고 들어 온 것만 게재하니까 원고가 부족한 거예요. 새물리 쪽에서 편집진을 보강해서 원고를 모아야 되요.

김민곤 옛날에 제가 한국물리학회 50년사를 편집하면서 보니까 특히 김철수 선생님이 원고를 모으느라고 벌고 벌어서 원고를 가져와 새물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원고가 부족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과 첨단기술에서 기획을 해서 원고를 잘 받아 오거든, 새물리도 편집위원을 보강해서 책임지고 해설이든 뭐가 됐든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개가 같은 내용으로 실리면 물리학과 첨단기술은 홍보쪽으로 가고 새물리에서는 학술적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편집진을 보강해서 옛날 김철수 선생님 하시던 방법으로 많이 받아 오시면 됩니다.

송희성 옛날에는 새물리뿐만 아니라 JKPS 논문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김민곤 고윤석 교수님이 회장님일 때 저는 편집을 맡아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논문이 인쇄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자랐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써서 냈지요. 편집간사가 논문을

쓰니까 잘 통과되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응용물리 1권 1호에 제가 논문 써서 냈어요.

우정원 이번에 총회에서 통과된 편집위원이 총 30명으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젊은 분들을 모셔서 많이 늘리세요.

김민곤 CAP이 편집위원수가 훨씬 많죠?

홍순철 CAP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우정원 CAP이 20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논문 투고가 너무 많아서 편집위원 업무가 너무 많아 이 기회에 모든 학술지 편집위원 총수를 늘렸습니다.

SCIE의 노하우

홍순철 조성호 선생님께서 편집위원장 맡으셨을 때 JKPS가 SCI로 된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성호 JKPS가 SCI에 가입하게 됐을 때 시작은 고 선생님이 회장하실 때 한국물리학회 잡지를 전부다 SCI에 보내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88년이나 89년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89년부터 편집위원장을 맡아서 봤더니, 그 당시에는 우선 JKPS부터 들어가는 게 순서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는 모든 잡지를 한꺼번에 다 SCI에 가입시키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 주로 JKPS를 가입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 동안 편집위원장을 하면서 성공시키지 못해 그 후 2년 동안 재수를 해서 다행히 JKPS가 SCI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서 위원회를 열어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내에 있는 분들만 편집위원으로 해서는 스케일이 작으니 우선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재미학자들 몇 분을 모셔서 위원회를 했더니 재미위원 중에서 한 분이 악순환에 대해 코멘트를 했습니다. 왜 악순환이냐. 좋은 논문은 아까 우리 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데 내지 왜 JKPS에 내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 서울대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4년 동안의 노력이 결과를 맺어서 제가 임기 끝나기 한 반 년, 6개월 이전에 92년 12월에 최종적으로 SCI 가입이 성공적으로 되었지요. 제가 93년 4월 임기를 마친 이후 학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해 보지는 않았지만, 퇴임한 이후에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물리학회에 크게 발전한 것에는 그 사이 응용물리학회에 떨어져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순간을 잘 극복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게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도 보고요. 그 이후에 새물리, JKPS, CAP 등이 많이 발전해 왔지만, 내 생각에는 우선 새물리가 한국어로 발간하고 JKPS, CAP은 영어로 발간하고 SCI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좋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새물리보다는 JKPS, CAP을 선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물리의 논문수에 약간의 위기를 느껴서 이런 모임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이 CAP의 impact factor가 많이 올라가면서 발전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일면에는 JKPS는 상대적인 약화를 가져와서 지난 몇 년 동안 좀 어려운 점을 겪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학회에서는 새물리, JKPS, CAP을 전체적으로 잘 조절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발전시키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철 새물리가 SCIE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선생님께서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조성호 저는 주로 JKPS만 봤기 때문에 새물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국제화다 뭐다 해서 학교에서 다 영어로 강의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된 논문을 써서 기록에 남기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물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나 하는 문제는 해설논문 같은 것을 김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편집위원들이 좀 열심히 노력하시면 논문 수를 늘리고 회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세대 입장에서는 새물리가 계속 유지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물리가 61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호하고 호수하고 딱딱 맞아요. 그래서 금년에 50주년 하고 딱 맞는데, 50년씩 있던 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학회로서도 고민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새물리와 물리교육

김철성 물리교육 분야를 새물리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물리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안을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편집위원장 밑에 별도의 조직이 있어서 중·고등학교에서 물리교육에 관련된 논문을 투고하고 교정해서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수록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해야 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만을 가지고 하려면 무엇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성호 미국에는 American Journal of Physics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소개가 되요. 우리도 고등학교 교사들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섹션을 새물리에 넣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홍순철 그런 문제를 지난번 학회 임원 워크숍 때 말씀을 드렸더니, 논문의 질이 낮을 수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민곤 맞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편집위원을 확장을 해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투고하는 논문을 다시 써야 돼요. 제가 편집위원하고 편집위원장할 때 교사들의 논문은 제가 다 다시 썼습니다. 다시 안 쓰고는 게재가 안 돼요. 편집위원들이 논문이 되도록 도움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집위원이 보장되어야 돼요.

김철성 새물리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교육지와 새물리가 합병이 됐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곤 물리교육지가 새물리로 통합되면서 고등학교 교사 편집위원자리가 없어졌지요.

홍순철 고등학교 교사들이 편집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뭔가 보람을 느낀다든지, 오시면 굉장이 이질적인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보이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지속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황보창권 논문수가 부족한 게 큰 문제인데, 사실은 논문 질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총설논문을 좀 더 많이 게재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순철 물리학과 첨단기술의 해설논문들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비교적 젊은 전문가들이 작성하였고, 원고 마감시간이 촉박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로 교수님들이

옛날에 하셨던 일들을 쉽게 풀어서 새물리의 총설논문으로 투고해 주시면 후학들에게 읽히기가 좋은 우리 논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황보창권 제가 알기로는 이충희 박사님이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 년에 두 편씩 논문을 쓰셔야만 되더라고요.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투고하셔서 나중에 책을 한 권 내시라고 제안 드렸습니다. 다른 원로교수님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새물리도 활성화도 되고 좋은 기록도 남기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균 진짜 원로 교수님들이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기고를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 평생 하신 전공에 대해서 진짜 기초부터 써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새물리에 계속 투고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조합해서 책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윤석 원로 교수들을 편집위원으로 모시면 말씀하신 해설 논문, 총설논문 같은 것들을 게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성균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해 주시면.

우정원 아까 김철성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4대 편집위원회에 보면 홍보잡지의 경우에는 처음 만들 때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역대 편집위원장님이 그냥 자문위원으로 되어있고, 모든 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새물리가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해서 실무이사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희성 이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 양성자 가속기다 그런 것이 다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새물리에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중이온 가속기도 그렇고,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니 논문으로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하는 여러 국제 과제들의 기술 보고서 같은 것들도 새물리에 좋은 논문으로 나올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국문학술지의 명성을 위해서

김철성 저는 새물리는 물리학회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물리 활성화에 원로 교수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물리에 투고되는 대부분의 논문은 아까 홍순철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지부학회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참여가 많이 부족합니다. 서울 지역도 지부학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분야별로 모여서 학술대회를 하든지 해서 다른 지방에 계시는 분들처럼 학술지도 돕고 본인 연구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도록 원로교수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물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원로교수님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는데, 원로 교수님들을 새물리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매번 학회 때만이라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보고, 해설 논문을 부탁드리면 아주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보창권 한국 사람들이 비록 영어로 논문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고는 아직 한국 정신과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와 문화를 우리말로 후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일한 국문 물리 학술지인 새물리는 아주 중요하고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희성 학회에서 한글 용어도 만들고 있잖아요. 한글 용어도 자꾸 써야지 용어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쓰면 문제가 심각하죠. 저술도 하고 (새물리에) 논문도 투고하고 많이 사용해야 우리나라 말도 자꾸 발전을 하죠. 요사이 신문에 외교문서 잘못 번역했다고 하는데, 나는 학자들 책임도 있다고 그래요. 용어를 옛날부터 많이 개발했더라면 누가 번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젊은 사람들 맘대로 사전 보고 그냥 하니까, 공식 용어를 쓰지 않고 딴 것을 쓰니까,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언젠가 우리도 안 쓰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물리를 반드시 활성화해야죠.

홍순철 송 교수님은 계원물리학상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송희성 논문, 책 등을 한글로 쓰는 걸 권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만들었죠. 예전에 제가 학술단체연합회 회장할 때 용어통일을 한번 했는데, 물리학회에서는 들뜬상대라고 하는데 전기학회에서는 여기상대라고 해서 같은 현상을 전혀 딴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였죠. 물리학

자들 중에서도 퍼텐셜을 다른 말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말로 자주 쓰면 앞으로 소통의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용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황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생들은 한국말로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훨씬 나을 것입니다. 영어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개념을 영어로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알아듣는 것이 더 쉽게 알 수 있고, 어려운 것을 영어로 하면, 용어도 잘 모르고, 개념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용어로 물리를 많이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었죠.

홍순철 새물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다 영어로 쓰게 되는데 연구를 하고 나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연구재단에 연차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 보고서를 없애고, 새물리 (국문학술지) 한 편을 게재하는 것으로 대신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논문수가 증가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최근에는 한국 학생이 거의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 학생들에게 한글 논문을 쓰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황보창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하게 한글 논문을 써야 자기 논리를 따라 갈 수가 있고, 자기만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영어로 쓰라고 하니까 어디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없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무엇인가를 가지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새물리가 출발하는 논문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새물리를 위한 제언

황보창권 올해가 새물리 50주년이라서 새물리 표지에다 50주년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올해 봄 학술대회 프로그램 책자에도 새물리 50주년 로고가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행사보다 기존의 행사에 “새물리 5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만 들어가도 사람들의 인식은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새물리가 형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바꿨거든요. 세계화할 수 있게끔 영어도 넣을 수 있게끔 규정도 바꿨고, 겉표지도 바꿨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많이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아주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논문 편수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부학회도 하나 더 생기고, 지부학회에서 지속적인 투고가 많이 되고 있고, 또한 총설논문도 새롭게 만들어서 점점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이미 2년치 총설논문을 뽑아 왔으니까 앞으로 총설논문을 일 년에 12편 나오게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정원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 실무이사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새물리를 잘 홍보를 할까? 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50주년 도약을 해서 내년 51주년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50년을 내다보는 새물리 활성화를 위해서 큰 그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철성 요즘은 일을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학회 차원에서 새물리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이사장님, 예산을 많이 편집위원회에 늘려 주세요.

우정원 사업계획을 내서서 실무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올해부터는 하이라이트 논문을 선정해서 이게 좋은 논문이라고 물체에 광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성 새물리에 투고되는 좋은 논문을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숙일 오늘 이 모임에서 새물리 해결책을 구했을 것 같네요.

김철성 매 학회 때마다 원로교수님들과 새물리 활성화에 이런 논의를 자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정원 홍순철 위원장님이 모임을 주선하시면 되죠. 학회에서 늘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된 많은 내용들을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이렇게 좌담회한 것을 모아서 물리학과 첨단기술에 새물리 50주년 특집호로 발간할 생각입니다. 또한 권숙일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새물리 논문 중에서 좋은 논문들을 선정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새물리가 어떻게 한국 물리학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모여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